

## Chinese Media Responses to Han Kang's Nobel Prize in Literature

Li Xiaoyu

Lecturer, College of Liberal Arts, Hallym University

1227076526@qq.com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Chinese media responses to Han Kang's Nobel Prize in Literature, analyzing how her award shaped perceptions of Korean literature and cultural identity in China. It aims to reveal the cultural meanings embedded in official narratives, commercial platforms, and online public discourse.

**Methods** Using discourse analysis and reception theory, the study analyzes texts from national media, commercial outlets, and online communities. It categorizes recurring patterns, compares institutional and popular reactions, and interprets how algorithmic amplification and user-generated discourse construct layered responses to Han Kang's award.

**Conclusions** Chinese reactions manifested in three patterns: official cultural framing, commercial amplification, and mixed public sentiment. These responses reveal admiration and cultural pride but also competition, fatigue, and caution. The findings show how global literary events mediate regional cultural dynamics and influence transnational perceptions in East Asia.

**Keywords** Han Kang; Nobel Prize in Literature; Chinese Media Discourse; Reception Theory; Cultural Identity; East Asian Cultural Dynamics

---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5.12.312.004](https://doi.org/10.23159/IJKC.2025.12.312.004)

Received: Nov. 20. 2025 ; Reviewed: Dec. 10. 2025 ; Accepted: Dec. 20. 2025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중국 매체에 나타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반응

이효우

### 목 차

1. 서론
2. 중국 매체에 나타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반응 양상
3. 중국 매체에 나타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
4. 결론과 전망

### 1. 서론

작가 한강(韓江)의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사회 전반에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sup>1</sup> 이 연구는 이 사건이 중국 내에서 동아시아 문학의 위상 재정립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내적 성찰을 어떻게 촉발했는지에 주목한다.

노벨상 수상 발표 직후,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당당망(当当网)에서는 ‘채식주의자(素食者)’와 ‘한강(韓江)’이 인기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바이두(百度)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틱톡(抖音)과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한강의 수상 소식과 작품 해석을 다룬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sup>2</sup>

이러한 현상은 한강의 수상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독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를 둘러싼 해석과 논의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작품 속 인간의 폭력성, 여성의 주체성,

1 人民网. (2024, October 10). 韩江成为首位获得诺贝尔文学奖的亚洲女性.

2 抖音平台热点数据. (2024, October 13). “韩江获诺贝尔文学奖”话题分析报告.

그리고 몸과 식(食)의 관계를 다루는 서사가 중국 독자들에게 자기 성찰과 사회 비판의 거울로 읽히며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한강 문학의 수상은 단순한 개인적 영예를 넘어 중국 내 여성 문학, 생태 문학, 번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중국 평론가와 매체에서는 서구 중심의 노벨문학상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중국 여성 작가들의 상대적 소외에 대한 비판적 담론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수용 양상은 중국 사회 내부의 문화 정체성과 문학 인식의 다층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동안 한강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품 내 주제 의식(예: 신체와 폭력, 여성의 주체성, 생태 담론)이나 번역 양상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사회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 담론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언론 담론, 대중 담론, 학술 담론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나는 수용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중국 사회의 수용 양상과 담론 구조를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 간 인식의 구조와 담론 생산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내 반응은 크게 네 가지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화사(新华社), 인민일보(人民日报), CCTV(央视新闻) 등 주요 국가 언론은 한강의 수상을 ‘한국 문학의 국제적 도약’이라는 문화 외교적 맥락 속에서 조명하며 공식 담론을 형성하였다.<sup>3</sup> 둘째, 바이두와 틱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대중의 반향은 디지털 시대의 문화 소비 방식과 문학 확산의 새로운 구조를 보여주었다.<sup>4</sup> 셋째, 웨이보와 두반 등 SNS 공간에서는 개인적 감상과 사회적 해석이 결합된 자발적 담론이 활발히 생산되었다. 넷째, 중국 학계와 문학 평론계에서는 한강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의 세계화와 번역 담론의 확장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언론 보도, 온라인 플랫폼 담론, 대중의 반응, 그리고 학술적 평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담론분석과 문화 수용 이론을 병행하여, 한강의 수상에 대한 중국 내

3 新华社. (2024, October 10). 韩江获得2024年诺贝尔文学奖. 新华网.

4 百度数据中心. (2024, October 11). 韩江搜索指数.

긍정적, 비판적 담론을 유형화하고 그 이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강의 수상이 중국 사회에서 어떤 문화적 상징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문학 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예고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중국 매체에 나타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반응 양상

### 2.1. 중앙 매체의 공식 담론 형성과 문화적 의미 부각

중국 언론 매체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한국 문학의 세계적 도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이를 공식적인 담론으로 형성하였다. 중국의 최고 권위 매체인 인민망(人民网)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계 각광받다”라는 기사에서 이번 수상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와 동아시아 문학권 내 위치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K-팝, 드라마 등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미미했던 한국 문학이 이번 수상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다른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 영예를 넘어 한국 문학의 세계문학 체계 내 위상 강화라는 거시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국영 통신사인 신화사(新华社) 또한 노벨위원회 위원장의 선정 이유를 상세히 인용하며 수상의 권위를 부각시켰다. 특히 작품의 문학적 성취, 즉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내면의 상처를 탐구하는 서사적 특성이 높이 평가되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단순한 수상 사실 전달을 넘어 문학적 평가와 권위 부여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CCTV는 신화통신 등 다른 관영 매체와 동일한 논조를 유지하며 한강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신속하게 보도하였다. 보도의 핵심은 “한국 작가 최초의 수상”이라는 사실 전달에 맞춰졌으며, 스웨덴 한림원의 발표를 인용하는 객관적 형식을 취하였다. CCTV는 별도의 논평이나 심층 분석보다는 국제 문화계의 중요한 소식으로 수상을 다루며, 사실 확인과 정보 전달에 주안점을 두어 중립적, 권위적 뉴스 보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중앙 매체가 정치적, 문화적 논쟁을 최소화하며, 국제적 문학 사건을 객관적 사실로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을 반영한다. 한편, 중앙 매체의 공식적이고 거시적인 담론과 병행하여, 지방 매체인 대상뉴스(大象新闻)는 ‘인생과 인류에 질문을 던지다’라는 기획을 통해 중국 내 문화인과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전달하며 담론을 풍부

게 했다. 예를 들어, 임동임 작가는 한강 작품이 단순히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깊은 사회적 의미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 문단 내에서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지방 매체의 보도는 중앙 매체와 달리 문학적, 철학적 해석과 감성적 공감을 결합한 심층적 담론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사회 내에서 한강 문학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파급력을 보다 세밀하게 조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 매체의 상호 보완적 보도 구조는 한강의 수상을 단순한 문화 뉴스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 상승과 동아시아 문학권 내 변화, 나아가 중국 독자와 문단이 지니는 문화적 자의식과 성찰을 동시에 드러내는 복합적 담론 지형을 형성하였다.

## 2.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중 담론 확산과 문학적 수용의 확장

최근 중국의 주요 숏폼 플랫폼인 틱톡과 콰이쇼우(快手) 등 월간 활성 이용자가 수억 명에 이르는 온라인 공간에서 한강 문학은 핵심 인용구와 상징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 창작자들은 한강을 “모든 역경에 처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조명하며, 그의 작품을 시대적 고통과 젠더 문제를 함께 사유하는 문학으로 해석하였다. ‘채식주의자’ 속 “내가 지금 고기를 먹지 않으면...”이라는 대사는, 숏폼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문화적 징후’로 전환되었다. 이는 작품의 복잡한 서사를 단일 메시지로 압축하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 구조에 대한 공공의 공감을 형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나아가 ‘아시아 최초의 노벨문학상 여성 작가’라는 상징적 수식은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억압적 관계의 현실을 드러내는 한강 작품의 페미니즘적 의미와 결합하여 강력한 사회적 파급력을 창출하였다. 이로써 숏폼 플랫폼은 여성 독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고통을 환기하고,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대중적 담론의 장으로 기능하였다.<sup>5</sup>

한편, 중국의 대표적 검색 포털인 바이두에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작가의 생애, 학력, 주요 작품 및 수상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사전 항목이 제시된다. 이는 일반 대중이 한강의 문학적 경로와 성취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5 抖音话题榜. (2024, October 16). “女性与文学 韩江”数据统计.

된 것이다. 이어 다수의 언론 보도는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스웨덴 한림원이 밝힌 선정 사유-역사적 트라우마의 응시와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탐구한 문학적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보도는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강이 국제 문학무대에서 확립한 위상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바이두 검색 결과에서 영상 및 이미지 자료의 동시 노출과 함께 “한강이 어떤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가”와 같은 연관 질의가 다수 제시되는 점은, 일반 독자들이 작가의 작품 세계, 번역 현황, 유통 상황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검색 행태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단순한 문화 뉴스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에 대한 독서 수요의 확대와 국제적 영향력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바이두 검색 결과는 한강의 수상이 중국 사회 내에서 문학적 사건을 넘어선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대중의 문학적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한국 문학의 세계문화적 위상 변화를 가시화한 복합적 문화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3. SNS 담론을 통한 한강 문학의 감성적 수용과 사회적 확산

중국 최대의 독서 커뮤니티인 두반은 한강 문학에 대한 독자적 해석과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였다. 현재 두반 독서 코너에는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와 관련하여 총 1,049편의 독서 노트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노트는 독자들의 자발적 해석과 비평적 성찰이 교차하는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텍스트의 학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비평적 독서 유형이다. 예컨대 약 2만 6천자에 달하는 한 독서 노트는 『채식주의자』를 여성주의 서사로 규정하고, 개인과 사회, 육체와 권력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문학 비평의 성격을 띠었다. 둘째, 작품이 유발하는 정서적 ‘불편함’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일부 독자들은 인간의 본질에 접근할수록 느끼게 되는 혐오와 거부감의 역설적 감정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신적 공허함을 드러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문주의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셋째, 상징과 은유에 대한 해석 중심의 독서 유형이다. ‘고기 먹기’를 사회 규범의 내면화로, ‘채식주의자’를 개인의 소외로, ‘나무’를 자아의 해방과 발현으로 읽는 등, 독자들은 작품 속 주요

이미지에 내재된 다층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상호 공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두반이 단순한 서평 플랫폼을 넘어, 한강 문학의 철학적, 미학적 함의를 심화시키는 독자 참여형 비평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웨이보와 위챗 등 중국의 주요 SNS 공간에서는 언론 보도보다 더욱 다양하고 감정적인 반응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웨이보에서는 「韩江获诺贝尔文学奖」 해시태그가 단기간에 수십만 건 이상 노출되었으며, 관련 담론은 여성주의적 해석, 아시아 작가로서의 자부심, 중국 문학계에 대한 자성 등 다층적 의미망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 자랑스럽다(虽然不熟悉, 但为亚洲女性作家感到骄傲)”라는 댓글은 한강의 수상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성 전체의 성취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6</sup> 또한 “한강의 수상은 더 많은 번역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韩江的获奖会带来更多翻译机会)”라는 위챗 공유글은 이번 수상이 향후 출판 및 번역 산업의 확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다.<sup>7</sup>

이와 같은 온라인 담론의 확산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단순한 문화적 사건을 넘어, 중국 사회 내에서 페미니즘, 번역 문화, 독서 취향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두반의 심층적 독서 담론과 SNS의 대중적 반응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한강 문학의 수용과 의미 재구성을 매개하며, 중국 내에서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과 문화적 파급력을 확대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2.4. 중국 학계의 비평적 해석과 번역 담론의 심화

중국의 논문 검색 사이트인 “CNKI”에 따르면, 한강과 그의 작품에 관한 일반논문은 74건, 학위논문은 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중국 학계에서도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사회과학원 외국문학연구소 및 주요 대학의 한국문학 전공 학자들은 한강의 문화적 성취와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수상이 한국 문학의 세계문화적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임을 강조하였다.

학계의 분석은 주로 한강 작품의 주제적 깊이와 미학적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채식주의자』와 같은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 사회적 억압, 인간 내면의 상처와 치유라는 복합적

6 微博用户A. (2025, October 10). 虽然不熟悉, 但为亚洲女性作家感到骄傲 [Post]. Weibo. <https://weibo.com> (Accessed October 15, 2025)

7 文学新视界. (2025, October 11). 韩江的获奖会带来更多翻译机会 [WeChat official account post]. WeChat. <https://mp.weixin.qq.com> (Accessed October 16, 2025)

문제 의식을 탐구하며, 이러한 요소가 보편적 공명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문학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평가되었다. 중국 학계의 논의는 한강 문학이 지닌 보편적 가치, 즉 역사적 트라우마와 개인적 정신사의 교차점을 파고드는 서사 전략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작품 세계가 한국적 콘텍스트를 넘어 글로벌 독자층과 공명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번역'의 중재 작용을 핵심적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이번 수상을 통해 번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채식주의자』가 영어 번역을 통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단에 진입한 사례를 지적하며, 번역의 질과 전략이 문학 수용의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원작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국제적 평가와 수용이 달라진다는 점은 중국 문학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학계는 향후 자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번역 인프라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제언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전문 번역 인력 양성, 문학 텍스트의 문화적 재현과 전략적 현지화, 국제 출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조하며,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문학적 영향력 확장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강 수상이 단순히 한 작가의 개인적 영예를 넘어, 동아시아 문학의 국제화와 번역 담론 심화라는 학술적, 문화적 효과를 촉발하였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앙 매체의 공식적 담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수용, 학계의 비평적, 전문적 논의를 통해 중국 사회 내에서 복합적 문화, 문학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단순한 한 작가의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동아시아 문학권 내 구조적 변화, 나아가 중국 문학계가 직면한 번역, 출판 전략과 문화적 자의식의 재검토라는 다층적 의미를 함축하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 3. 중국 매체에 나타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며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이면에는 상반된 정조를 지닌 비판적, 부정적 담론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단순한 개인적 비난이나 편견의 표출이라기보다, 중국 사회 내부의 문화적 자의식과 문학적 경쟁심, 그리고 노벨문학상 제도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강의 수상은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외적 현상

속에서, 중국 문학계의 자기 성찰과 정체성 논의를 촉발한 상징적 사건으로 기능하였다.

### 3.1. 중국 문학의 ‘비수상’에 대한 불만과 자성

SNS 공간에서 표출된 “왜 중국이 아닌가”라는 집단적 불만은 표면적으로는 경쟁국에 대한 배타적 감정으로 읽힐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중국 문학장이 직면한 ‘세계화의 딜레마’에 대한 심층적 자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국제 문학계에서 자국 문학의 주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문화적 위상의 격차를 넘어서고자 하는 내적 긴장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발언은 감정적 반발이나 일시적 분노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중국 문학의 국제적 영향력 부족에 대한 집단적 불만과 자기반성, 즉 집단적 자성(自省)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은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는 동시에,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의 승리가 아니라 중국 문학의 실패를 증명한다(这不是韩国文学的胜利, 而是中国文学的失败)”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한강 개인의 성취에 초점을 맞춘 평가라기보다는, 중국 문학계 전체의 세계화 전략 부재와 제도적 한계를 직시하게 만드는 논평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담론은 한강의 수상이 동아시아 문학 전반의 경쟁 구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인식되면서, 중국 문학계 내부의 국제화 전략과 제도적 폐쇄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비평적 담론에서는 “노벨문학상은 서구 중심의 문화 권력 구조 속에서 비서구 문학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재현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노벨문학상의 제도적 권위가 단순히 문학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아니라, 서구 중심의 문화, 이념적 프레임에 의해 규정된다는 구조적 불만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강의 수상은 단순히 한국 작가의 개인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학계가 직면한 세계문학 체계 속 위치와 경쟁력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자극적 사건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자성 담론은 또한 국가적, 문화적 자의식과 연결되어, 중국 사회가 자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 번역 및 출판 전략, 문학적 가치 평가 기준 등을 재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SNS 상의 반응은 한강 개인의 수상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중국 문학의 세계화 과정과 제도적 문제점을 탐구하고 논의하는 집단적 자아비판의 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2. 노벨문학상 제도에 대한 회의와 ‘정치성’ 비판

노벨상의 ‘정치성’에 대한 비판은 서구가 주도하는 국제 문화 질서에 대한 구조적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한강의 수상을 ‘문학성’이 아닌 ‘정치적 올바름’의 결과로 규정하는 이러한 담론은, 노벨상이 ‘보편적 문학성’의 기준을 대변한다는 신화를 의문시하며, 그것이 사실은 특정한 (서구적) 가치 체계에 편향된 ‘문화 권력의 장’임을 폭로하고자 하는 중국 내부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각은 한강 개인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 노벨문학상이라는 제도가 오랫동안 문화정치적 결정의 산물로 여겨져 온 역사적 논쟁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제기된 이 같은 비판은 노벨문학상이 단순히 “세계 최고의 문학상”이라는 명예로운 상징만이 아니라, 서구 담론권력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논평은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단의 가치 판단이 보편적 문학성보다는 서구 중심의 이념적 기준—특히 젠더 평등, 개인의 자유, 반권위주의적 서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강의 수상이 그녀의 문학적 성취보다 시대정신(Zeitgeist)이나 서구의 ‘정치적 공감 코드’에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확산된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특히 젊은 남성 이용자층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들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문학적 서사보다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상징으로 해석하며, 이번 수상이 “페미니즘의 국제적 승리(女性主义的胜利)”이자 “서구가 만들어낸 젠더 담론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sup>8</sup>

이러한 담론은 노벨문학상이 문학의 본질적 가치보다 시대적 의제에 종속된다는 불신을 강화하며, 나아가 서구 문단이 정치적 올바름을 문학적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한강의 수상은 한중 양국 문학의 비교적 문제를 넘어, 문학의 자율성과 정치의 관계를 둘러싼 담론적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단순한 ‘서구 제도 불신’으로 환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것은 중국 내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국제적 위상에 대한 내적 성찰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한강의 수상에 대한 ‘정치성 비판’은 서구 중심의 문학제도에 대한 구조적 불만과 동시에, 자국 문학이 세계문학 체제 속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화적 자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벨문학상이 지닌 제도

8 新浪微博统计中心. (2024, October). 微博话题“韩江诺贝尔文学奖”相关讨论数据.

적 위상-단순한 문학상 이상의 ‘문화 권력의 상징’-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이중적 인식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결국, 이러한 ‘정치성’ 비판 담론은 노벨문학상 자체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그 권위가 특정 문화권의 가치체계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는 한강의 수상이 제기한 “문학과 정치, 동양과 서양, 중심과 주변”이라는 복합적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며, 중국 내 문학 담론의 새로운 자성적 흐름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3. 작품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독(誤讀)과 반감

틱톡과 콰이쇼 등 중국의 대표적인 숏폼(Short-form) 플랫폼에서는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에 대한 직관적 거부감과 감정적 반응이 다수 확인되었다. 예컨대 “이런 불쾌한 내용이 왜 상을 받았는가(这样让人不舒服的作品凭什么得奖)”라는 댓글은 작품의 서사적 상징성과 미학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즉각적 감정 반응에 기반한 수용의 전형을 보여준다. 일부 이용자들은 한강의 서사를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여성 서사(病态的女性叙事)”로 규정하며, 작품이 지닌 상징적 층위나 철학적 문제의식보다 폭력적 이미지나 선정성과 같은 외형적 요소에만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은 문학 텍스트가 감정적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오늘날 중국의 온라인 문화 환경은 숏폼 영상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학작품 또한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 자원으로 변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복잡한 상징과 은유, 내면의 심리 묘사와 같은 문학적 요소들은 단편적 장면이나 자극적인 시각 이미지로 축소되어 인식된다. 이는 문학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해석적 독서’보다, 감각적 쾌, 불쾌에 따른 ‘반사적 수용’이 지배적인 온라인 독서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채식주의자』에 대한 일부 부정적 수용은 작품의 본질적 메시지-즉,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사회 규범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성에 대한 탐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 불쾌감과 낯섬의 감정으로 귀결된 일종의 오독(誤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은 문학의 의미 생성이 독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강의 작품이 던지는 불편함과 불안의 정서가 중국 독자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불응’으로 작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오독은 단순한 개인의 이해 부족을 넘어, 중국 온라인 사회의 상업화된 문화

소비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정보 소비를 중심으로 한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에서는, 내면적 성찰을 요구하는 문학작품의 미학이 충분히 소통되기 어렵다. 『채식주의자』의 폭력적 장면과 신체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클립화되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작품의 철학적 의미는 사라지고 “불쾌한 영상”, “기괴한 여성상” 등의 단순한 해석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왜곡된 수용은 문화적 깊이와 상징성을 배제한 채 ‘시각적 자극’으로서의 문학만을 소비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중국 온라인 독자층의 부정적 반응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문학 수용 방식 변화라는 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학의 심층적 의미가 감정적 반사와 상업적 콘텐츠화 속에서 어떻게 탈맥락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나아가 한강의 수상이 제기한 문화 간 해석 격차의 단면으로 분석될 수 있다.

### 3.4. 한국 문화의 ‘과도한 부상’에 대한 견제 심리

마지막으로, 일부 비판적 담론은 한강 개인의 수상 자체보다는 한국 문화의 급격한 부상 에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예컨대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문학인가”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탄이나 축하를 넘어, 한류 문화 전체의 확산 속에서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경쟁심과 위기 인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능한다.

특히 일부 중국의 문화평론계정은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문화 수출 전략을 통해 문학상을 얻었다(韩国通过国家文化战略赢得文学奖)”고 지적하면서, 한강의 성취를 개인의 문학 적 역량보다는 국가적 마케팅 시스템의 산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히 한국 문학을 폄하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중국 문학계가 체감하는 자국 문화의 위축감과 복합된 정서를 반영한다.

즉,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사회에서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 상승을 인정하는 동시에, 동시에 자국 문화의 영향력 약화를 체감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적 경쟁과 긴장 속에서 형성된 일종의 ‘문화적 불안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담론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중국 독자 및 비평가들에게 상승세의 주체가 ‘타국’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러한 담론은 단지 문화 소비의 문제를 넘어 문화 권력과 국제 문학제도에 대한 구조적 의문을 동반한다. 즉, ‘왜 우리 문학이 먼저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한국

문학이 국가적 문화 전략을 통해 세계문학체계에 진입했다면 중국 문학도 그러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자기 성찰적 논의가 병존한다. 셋째로, 이러한 경계심은 문학작품 자체보다는 문화생산과 유통 체계, 번역 전략, 국제 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문학 수상이라는 개인의 영예가 결국에는 국가 브랜드, 문화 수출 전략, 국제 시스템과 결합된 결과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종합하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중국 내 견제적 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문학사적인 의미를 갖는 작가이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가 빠르게 세계 문화무대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중국 독자, 비평가들에게는 자국 문화의 위치 변화와 그로 인한 문화적 긴장감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수상은 단지 한국 문학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문학권에서 중국 문학이 마주한 재정립의 과제,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능하였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적 영예를 넘어, 중국 내 문학 담론에서 국제화 전략, 제도적 한계, 문화적 자의식, 그리고 동아시아 문학권의 경쟁 구조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는 문학과 문화, 정치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사건으로서, 중국 사회가 자국 문학의 세계적 위치와 전략적 과제를 재검토하는 중요한 담론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 4. 결론과 전망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중국 매체의 반응은 단순한 문화 뉴스의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문학의 위상과 중국 내부의 문화적 자의식을 교차시킨 복합적 담론 지형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주요 언론과 학계는 이번 수상을 한국 문학의 세계문화적 도약으로 평가하며, 한강이 제시한 문학적 성취와 보편적 주제의식-역사적 트라우마, 인간의 상처와 치유, 여성의 주체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인민망, 신화사, CCTV 등 국가 차원의 공영 매체는 수상의 역사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를 객관적, 중립적 어조로 전달하며,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한국 문학이 세계문학 체계 속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두반, 틱톡, 웨이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한 대중적 해석과 감정적 공감의 폭넓게 확산되며, 여성주의, 인간성, 사회 비판이라는 담론이 사회문화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가 한강 문학을 단순히 ‘타자의 문학’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 내 젠더 문제, 문학적 감수성, 독서 취향의 변화를 성찰하는 계기로 수용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사회에서 문학, 문화, 정치 담론이 교차하는 복합적 사건으로 작동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강 수상에 대한 중국의 수용 양상은 단순한 ‘찬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복잡성을 드러냈다. 긍정적 반응은 한국 문학의 도약을 인정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면, 부정적 담론은 오히려 중국 문학 내부의 취약점과 국제 문화 정치에 대한 경계심을 직시하게 만드는 ‘생산적 불편함’의 계기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가적 반응은 중국이 동시대 문학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자국 문학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음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내에서 하나의 투명한 ‘렌즈’로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성장, 노벨상의 제도적 권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재편되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역학 관계와 중국 자신의 문화적 자의식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지형이 선명하게 가시화되었다.

본 연구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중국 사회의 반응을 언론 보도, 대중 담론, SNS 확산, 학계 담론이라는 네 가지 층위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시간적, 자료적 한계 속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심화가 요구된다.

첫째, 비교문화적 시각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중국 내부 담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에는 한국, 일본, 서구권 언론의 반응을 함께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학권 내 문화 수용의 상호작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문학 간의 번역 네트워크와 수용 체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추적하는 비교문화 연구가 유의미하다.

둘째, 데이터 기반 담론 분석의 정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로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바이두 검색 지수, 웨이보 해시태그 노출량, 두반 리뷰 텍스트 등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담론의 양상과 감정적 경향을 계량적으로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강 문학의 수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정량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번역과 문화정치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강 문학의 세계화는 단순한 언어 번역의 성과가 아니라, 문화적 권력 구조와 번역 주체의 전략적 선택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한강 작품의 중국어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을

비교하여 번역 과정에서의 의미 재구성과 문화적 재맥락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중문화와 문학 수용의 융합 양상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한강의 수상은 전통적인 문학 독자층을 넘어, SNS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독자층”의 등장을 가시화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문학을 소비하고 재해석하는 방식, 즉 문학 텍스트의 ‘2차 창작’과 감정적 공명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중국 문학의 자기인식과 문화적 경쟁심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내 일부 비판적 반응을 문화적 불안의 표현으로 해석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정서가 중국 문학 내부의 창작 방향과 제도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한강의 수상이 중국 문학 발전 담론에 미친 구조적 효과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젠더와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을 접목한 심화 연구도 가능하다. 한강의 문학 세계가 다루는 여성의 몸, 폭력, 생태와 공존의 주제는 단지 페미니즘 담론을 넘어서, 인간 존재와 자연, 타자성의 경계를 탐구하는 탈인간주의적 문학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층위를 중국 독자와 비평가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재해석하는지에 대한 교차문화적 분석이 요구된다.

요컨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동시대 동아시아 문학의 지형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일 뿐 아니라, 국가, 언어, 젠더, 매체를 초월한 복합적 연구의 장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는 문학 텍스트 분석을 넘어, 번역학, 매체문화론, 비교문학, 데이터문화연구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한강 문학의 세계적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Zhang, M. (2024). The globalization path of Korean literature: Reflections from Han Kang's Nobel Prize. *Foreign Literature Review*, 2024(12).
- Li, Jianmin. (2024). The “political empathy” mechanism in Western literary institutions: Insights from Han Kang's award. *Contemporary Literary Forum*, 5, 58-66.
- Chen, Siyuan. (2024). Political correctness and the boundaries of literary awards.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4, 74-82.
- Zhao, Yifan. (2024). Distrust and reflection: Literary-political discourse in Chinese literary theory. *Literary Review*, 3, 22-30.
- Zhang, Jing. (2024). Han Kang's award and the cultural self-awareness of Chinese literature. *East Asian Cultural Exchange Studies*, 2, 91-99.
- Zhou, Zhihua. (2024). Center and periphery: The new landscape of East Asian literature after Han Kang's award. *Asian Comparative Literature*, 6, 101-110.
- Liu, Wenjing. (2023). Cultural translation strategie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Vegetarian*. *Foreign Language Studies*, 6, 45-52.
- Wang, Xiaohong. (2024). Translation as re-creation: Implications for the global circulation of Han Kang's works. *Chinese Comparative Literature*, 3, 88-96.
- Zhang, Yifan. (2024). China's “Going Global” strategy and the ecology of literary translation. *Peking University Journal (Humanities & Social Sciences)*, 5, 112-120.
- Zhang, Hui. (2024). Psychological responses of the Chinese literary field to Han Kang's award. *Contemporary Literary Observation*, 5, 45-52.
- Wang, Dong. (2023). Cultural anxiety and the reconstruction of national cultural identity. *Cultural Industry Review*, 3, 81-90.
- Chen, Yifan. (2024). Literary awards and the redistribution of cultural power.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2, 55-63.
- Zhao, Yun. (2024). Translation, publishing, and national cultural image. *Foreign Literature Studies*, 4, 99-107.
- Li, Jian. (2024). Structural changes in East Asian literature after Han Kang's Nobel Prize. *Asian Comparative Literature*, 6, 112-120.
- Zhou, Lixin. (2024). Literary awards, cultural competition, and identity politics. *Modern Cultural Studies*, 5, 41-50.
- Wang, Chunlin. (2024). Literature, politics, and cultural power: Focusing on Han Kang's Nobel Prize. *Literary Review*, 5, 71-79.
- Han, Myunghwan. (2024). The meaning of Han Kang's Nobel Prize in Literature. *Poetry and Culture*, 18(4), 175-182.

- Cho, Euna. (2025). The Nobel Found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Han Kang's award. *Intellectual Olympiad*, 68(1), 268-273.
- Park, Moonjung. (2024). Han Kang's Nobel Prize and Italian media reception. *Foreign Literature Studies*, 97.
- Park, Jeongwon. (2024). Reception of Han Kang's works in China. *Foreign Literature Studies*, 97.

## 중국 매체에 나타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반응

이효우

한림대학교 일송대학 강사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아시아 여성 작가인 한강을 둘러싼 중국 사회의 다층적 반응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국가 주류매체, 상업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 서로 다른 담론 장에서 나타난 수용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한강의 수상이 중국 내 한국문학 인식과 문화적 정체성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 문학상이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역학 및 문화 담론을 매개하고 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담론분석과 수용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중국의 주요 언론 기사, 온라인 서점과 같은 상업 플랫폼의 데이터, 웨이보 등 온라인 이용자 담론을 포괄적으로 수집, 검토하였다. 각 자료는 담론의 유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되었으며, 공식 담론, 상업 담론, 대중 담론이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확산 양상, 사용자 반응의 정서적, 문화적 층위 등을 분석하여 한강의 수상이 중국 사회 내 문화 인식 구조에 어떠한 담화적 변화를 유발했는지를 탐색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 중국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담론 구조로 나타났다. 첫째, 공식 매체는 한강의 수상을 동아시아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부각하는 사건으로 규정하며 제도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둘째, 온라인 서점 등 상업 플랫폼은 판매 지표와 알고리즘을 통해 관련 정보를 대규모로 확산시켰다. 셋째, 온라인 이용자 담론은 찬사와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문화 피로, 경쟁 의식, 신중한 태도 등이 혼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담론들은 한국문화 영향력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중국 문화 지형 내 구조적 긴장과 인지적 태도를 반영한다. 나아가 국제 문학상이 동아시아 문화 역학과 초국가적 인식을 재구성하는 매개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한강, 노벨문학상, 중국 매체 담론, 수용이론, 문화 정체성, 동아시아 문화역학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